

# 정례브리핑

2020.7.27(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내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되는 통합과 상생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탈북민이 재월북한 것에 대한 통일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문>** 최근 월북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건지요?

<답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통일부 차원에서 지금 탈북자가 재월북한 사례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에 신고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것처럼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탈북자의 재입북자는 총 11명입니다. 2015년에 3명이 있었고요. 2016년에 4명 그리고 2017년에 4명 등으로 총 11명이며, 올해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월북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코로나 확산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재입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또 특정된 다음에 그 사람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

**<질문>** 앞서 설명을 좀 하시긴 했는데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MDL 넘어서 월북한 정황이 지금까지 파악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파악이 됐을까요?

**<답변>** 그건 현재 군 당국에서 확인 중에 있어서 군 당국의 확인 이후 발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